해남 산이정원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 사업' 선정

관광공사 사업비 지원 받아 체계적 마케팅·프로그램 지원

26일 ESG 페스티벌, 4~5월 두 달간 '첫 봄 페스타' 열려

솔라시도기업도시의 상징적 사업인 해남 산이정원이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해남군은 산이정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균형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인기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발굴해 체계적인 마케팅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산이정원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에 조성되고 있다. 전남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으로, 지난해 5월 5만여평(16만 5000㎡)이 1차로 개장했으며 올해 총 16만평(52만 8000㎡) 규모로 전면 개장할 예정이다.

수목원과 산책로 등 녹지공간뿐만 아니라 미술관, 카페,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져 세대 간 교감을 이끌어내는 가족 단위 힐링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26일 ESG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산이정원과 전라남도ESG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어린이 사생대회, ESG 북콘서트,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자연을 주제로 한 예술행사, 환경 관련 강연, 실천형 체험 활동 등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4~5월 두달 동안 '산이정원 첫 봄 페스타'를 통해 정원내 만개한 봄꽃을 활용한 포토존 등을 조성해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해남군과 한국관광공사, 산이정원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전남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이병철 ㈜아영 대표이사가 참석해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마케팅과 상품 서비스 지원 등에 협력을 약속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으로 해남의 관광자원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산이정원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과 한국관광공사, 산이정원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전남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명현관 해남군수, 이병철 ㈜아영 대표이사. 〈해남군 제공〉

목포시립도서관 '날마다 독서' 참가자 모집

초등 4~5학년 10명 대상

목포시립도서관(관장 최진수)이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2025 날마다 독서' 1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13기는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함께 읽는 과정으로, 5월 4일부터 3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0명이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기억에 남는 문장과 감상을 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완독 이후인 5월 31일에는 목포시립도서관에서 오프라인 독서 토론과 함께 주제 도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립도서관 사서팀(061-278-3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날마다 독서'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2기 동안 총 185명의 시민이 참여해 12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월출산 설화 담은 애니 서울국제AI영화제 단편 애니메이션 대상

영암군은 월출산의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금마 왕자와 월출산 낭자'가 제2회 서울국제AI영화제에서 단편 애니메이션(Best Animation Short)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은 한국콘텐츠개발원이 영암군과 함께 지난해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제작한 작품이다.

'금마 왕자와 월출산 낭자'는 영암군 대표 자연자원이자 관광지인 월출산의 설화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됐다.

영암군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금마 왕자와 월출산 낭자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17분의 러닝타임에 담고 있다. 작품은 현재 영암군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서울국제AI영화제는 'AI가 만든 영화, 사람이 공감하는 이야기(Beyond Code, Into Story)'를 주제로 전 세계 14개국에서 출품한 258편 작품 중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의 수많은 보물과 첨단기술이 만나는 더 다양한 콘텐츠로 영암의 멋과 맛, 사람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신안군,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 교육…3개 기관과 협약

폭력예방 홍보·교육 지원 등 협력

신안군이 신안경찰서와 전남여성가족재단,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에 따른 것이다. 교육 대상은 일반 군민들로 본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번 협약에는 ▲폭력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예방사업 적극 추진 ▲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군은 교육대상자 모집과 장소를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신안경찰서는 캠페인과 현장 상담을 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 홍보와 교육진행 시 필요한 다과 봉사를 진행한다.

교육은 읍·면별로 1회 이상 회당 최대 100여 명 이내로 한다. 교육내용은 4대 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을 중심으로 하고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 사례도 포함된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폭력 예방을 넘어 군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다"라며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이 신안경찰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저소득층 가구 해충 방역 소독 지원

무안군이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사업인 '해충 방역소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무안지역자활센터 행복드림세탁 사업단과 협력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이동빨래방 차량을 통한 세탁 서비스와 해충 방역소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활기금으로 이동빨래방 차량을 구입, 무안지역자활센터에 전달했다.

행복드림세탁 사업단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전문 장비를 갖춘 이동빨래방 차량을 활용해 각 마을을 순회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된 해충 방역소독은 세탁 서비스와 함께 제공돼 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환경의 청결과 위생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장영선 무안군 사회복지과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돌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완도군 올해 35억원 투입 인재육성·교육환경 개선

'강남 인강' 무제한 수강도

완도군이 올해 교육지원사업에 14억원, 장학사업에 21억원 총 35억원을 투입해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교육 분야에는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진로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학교 교육 시설 투자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이 해당된다.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학 사업으로는 ▲인재 육성 장학금 ▲미래 교육 ▲교육 환경 개선 ▲보편적 교육 사업 등 4개 분야, 1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 중·고교 학생들이 만 원에 서울 강남구 인터넷 강의 '강남 인강'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도서 지역 학생들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군은 교육 인구 감소와 입시 제도 변화 속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교육, 장학 사업 발굴 및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